

● 신.약.편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본문 : 사도행전 19장 20-22절

19:20 οὕτως κατὰ κράτος τοῦ κυρίου ὁ λόγος ἤξανε καὶ ἰσχυεν. 21 Ὡς δὲ ἐπληρώθη ταῦτα, ἔθετο ὁ Παῦλος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διελθὼν τὴν Μακεδονίαν καὶ Ἀχαΐαν πορεύεσθαι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εἰπὼν ὅτι μετὰ τὸ γενέσθαι με ἐκεῖ δεῖ με καὶ Ῥώμην ἰδεῖν. 22 ἀποστείλας δὲ εἰς τὴν Μακεδονίαν δύο τῶν διακονούντων αὐτῷ, Τιμόθεον καὶ Ἔραστον, αὐτὸς ἐπέσχευ χρόνον εἰς τὴν Ἀσίαν.

2. 본문 번역

가. 개역개정

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나. 새번역

19: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21 이런 일이 있던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테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다. 공동번역개정

19:20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즐기치게** 퍼져 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 21 이런 일이 있던 뒤에 바울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 봐야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22 그래서 그는 자기 협조자 중에서 디모테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앞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눌러 있었다.

라. NIV

19:20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21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lso.” 22 He sent two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sia a little longer.

마. NRSV

19:20 So **the word of the Lord grew mightily** and prevailed. 21 Now after these things had been accomplished, Paul **resolved in the Spirit** to go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nd then to go on to Jerusalem. He said, “After I

have gone there, I must also see Rome.”²² So he sent two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himself stayed for some time longer in Asia.

바. 본문에 대한 사역

19: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고 점점 강해졌다.²¹ 이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나는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²² 그래서 자기와 동역하는 자들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테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파송하고, 바울 자신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3. 동사분해

가. 20절

ἠύξανεν(*αὐξάνω* [to grow, increase]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지속적으로) 자랐다’) / *ἴσχυεν*(*ἰσχύω* [to be strong, able]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지속적으로) 강해졌다’)

나. 21절

ἐπληρώθη(*πληρώω* [to fill, make full, complete]의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것)가 이루어졌다’) / *ἔθετο*(*τίθημι* [act./pass. to place, mid. to fix, arrange]의 단순과거,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결정하였다’) / *διελθών*(*διέρχομαι* [to pass through]의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통과하는’) / *πορεύεσθαι*(*πορεύομαι* [to go, proceed, travel]의 현재, 중간태, 부정사, ‘여행하는 것’) / *εἰπών*(*λέγω* [to say, tell]의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말하는’) /

γενέσθαι(γίνομαι [to become, be]의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 ‘되는 것’) / δεῖ(δεῖ [it is necessary, one must or has to]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해야 한다’) / ἰδεῖν(ὁράω [to see, catch sight of, notice]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 ‘보는 것’)

다. 22절

ἀποστείλας(ἀποστέλλω [to send as a official representative]의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공적 임무를 부과하여] 파송하는) / διακονούντων(διακονέω [to wait on someone at the table, serv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속격, ‘섬기는’) / ἐπέσχεν(ἐπέχω [trans. to hold fast, hold toward, intr. to stop, stay]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머물렀다’)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가. 용어 설명

1) κατὰ κράτος τοῦ κυρίου :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according to or through the power of the Lord). κράτος는 (지배자의) 권력(power), 권위(authority), 지배력(dominion) 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서신의 예전적인 단락(송영, 기도 또는 찬양 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며, 이는 성서적-유대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눅 1:51; 골 1:11; 딤후 6:16; 벧전 4:11; 1QM 10:5; 1QH 7:17, 19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용례와 부합되게 κράτος가 인간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신약 용례의 특별한 강조점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20절의 *κατὰ κράτος*는 ‘힘 있게 (mightily)’라는 뜻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τοῦ κυρίου*와 함께 사용되어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첫째, 사도행전 22장 3절의 유사한 예(*κατὰ ἀκρίβειαν τοῦ πατρῶου νόμου*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와 같이 *κατὰ* 다음에 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둘째, *ὁ λόγος*는 사도행전에서 수식어 뒤에 따라오는 후치(後置) 명사(*nomen regens*)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행 19:10의 *τὸν λόγον τοῦ κυρίου* 참조), 셋째,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어지는 요약적인 진술로서 20절의 의미와 가장 잘 부합된다는 점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H. Balz and G.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s. v. “*κράτος*” by P. von der Osten-Sacken [Michigan: Grand Rapids, 1991], 315~16;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B31; New York: Doubleday, 1998], 652).

2) *ἠύξανεν* : “(지속적으로) 자랐다.” 동사 *αὐξάνω* [to grow, increase]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 동사의 신약성경 용례 이면에는 창조 세계의 성장 이미지가 놓여 있는데, 특히 예수의 비유에서 파종과 성장, 추수라는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막 4:8 등). 사도행전에서는 말씀(*ὁ λόγος*)의 성장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수차례 사용되고 있으며(6:7; 12:24; 19:20 등), 이는 *πληθύνω*(to increase, multiply), *ἰσχύνω*(to be able, to be strong)등과 함께 사용되어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칠십인역(LXX)의 용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αὐξάνω*가 *ἰσχύνω*와 함께 사용되어 이러한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 Balz and G.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s. v. “*αὐξάνω*” by H. Leroy [Michigan: Grand Rapids, 1990], 178~89).

3)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 “성령 안에서.” 새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은 이

구절의 *πνεῦμα*를 바울 개인의 마음(또는 영)으로 이해하여 “마음에 작정하고”(새번역), “작정하고 혼잣말을 하였다”(공동번역개정판)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아예 이 표현을 번역에서 누락시켰으며, NIV 역시 명시적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구절의 *πνεῦμα*는 바울 개인의 마음이나 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한다. 바울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여행 경로와 목적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적 필요를 나타내는 동사 *δεῖ*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누가가 명시적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성령에 매인 것”(δεδεμένους τῷ πνεύματ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239; Richard I. Pervo, *Act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482~83;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370~71). 따라서 21절의 여행 경로와 목적지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심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ἐν τῷ πνεύματι는 NRSV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in the Spirit)로 번역되어야 한다.

4) δύο τῶν διακονούντων : 문자적으로는 “섬기는 자들 중에서 두 명.” *διακονούντων*은 *διακονέω* [to wait on someone at the table, serve]의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남성 명사로 사용되었다. *διακονέω*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중들다’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복음 선포에 강조점이 놓인 사도들의 사역을 표현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을 뜻하며, ‘동역자들’이라고 의역할 수 있다(H. Balz and G. Schneider, eds.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s. v. “*διακονέω*” by A. Weiser [Michigan: Grand Rapids, 1990], 304).

나. 문법 사항 설명

20절에 나오는 부사구 *κατὰ κράτος*는 고대 헬라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군사력으로’ (by military force)라는 의미로 매우 자주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로 어떤 종류의 능력에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힘 있게’ (개역개정은 ‘힘이 있어’)라고 이해하고 이어지는 *τοῦ κυρίου ὁ λόγος*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Richard I. Pervo, *Act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481, 각주 64). 같은 맥락에서 무울(C. F. D. Moule)은 *τοῦ κυρίου ὁ λόγος*를 단순히 *ὁ λόγος τοῦ κυρίου*가 치환(displacement)된 것으로 설명한다. 매김말로 사용되는 헬라어 속격의 위치는 통상 그 속격의 꾸밈을 받는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므로 본래의 어순은 *ὁ λόγος τοῦ κυρίου*가 되어야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τοῦ κυρίου ὁ λόγος*의 어순으로 치환되었다는 것이다(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69). 그러나 *κατὰ κράτος*를 헬라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라 이해한다면, 이 용어는 단순히 ‘힘 있게, 능력 있게, 줄기차게’ (in power, mightily 등)라는 뜻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τοῦ κυρίου*와 함께 사용되어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위의 용어 설명 참조).

또한 21절에 나오는 동사구 *ἔθετο ἐν τῷ πνεύματι*에서 *πνεῦμα*를 인간(바울의 마음(영))으로 이해하고 *ἔθετο ἐν τῷ πνεύματι*를 히브리적인 영향을 받은 관용적 표현으로 보아 ‘~를 의도하다, ~라고 생각하다’ (to intend to, to think of)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201, § 392). 같은 맥락에서 개역개정판은 *ἔθετο ἐν τῷ πνεύματι*를 ‘작정하여 라고 번역하였고,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마음에’라는 뜻을 담아 번역하였다. 그러

나 앞선 용어 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문의 *πνεῦμα*는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ἔθετο ἐν τῷ πνεύματι*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였다’ 정도로 번역되어야 한다.

5. 설교에 적용하기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여행의 모본이라고 할 만한 예수님이 여행이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른바 누가의 여행사화라고 불리는 긴 단락이 시작되는 9장 51절에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τὸ πρόσωπον ἐστήρισεν*,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고정시키고’), 사자들을 앞서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여행을 시작하여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서 있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교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의 결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는 에베소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여 **주님의 능력으로**(*κατὰ κράτος τοῦ κυρίου*)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고 점점 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누가는

향후 전개될 바울의 행적 역시 성령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ἐν τῇ δυνάμει τοῦ πνεύματος)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관심과 정확하게 일치한다(예를 들어 눅 4:14 등).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결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성령에 매여’ (δεδεμένος τῷ πνεύματι)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힘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잠 16:9).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